



모든 요소들의 조화로운 하모니

- 자비안 스피커 XN Piccola

글/David Lee

작년에 선을 보인 후 하이파이 초이스의 베스트 바이로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자비안의 XN Piccola 스피커를 수입사인 (주)다비앙의 시청실에서 만났다. 스피커의 이름인 피콜라는 이탈리아어로 '작고 귀여운'이라는 뜻이지만, 그렇게 작지만도 않은 일반적인 사이즈의 2웨이 풀보이 형인데, 아마도 자비안의 플래그십인 XN 비르부오소의 컴팩트 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자비안의 대표인 로베르토 바틀레타는 이탈리아인으로서 체코에 공방 형태로 자비안을 설립하여 이탈리아의 풍격과 장인정신을 결합하여 특유의 오디오 컬러로 오디오 파일들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데, 그의 모토를 옮기자면 "하모니란 궁합이 맞는 온갖 사물들의 신중한 결합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바로 그런 정신 하에 이탈리아식 디자인이 탄생하였고, 여기에 음악성과 기술력을 포함하는 삼위일체가 자비안의 오디오 철학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정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완벽한 모토인데, 우리는 그의 말만 믿고 스피커를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정신을 가다듬고 요모조모를 확인부터 시작하였다.

이 스피커는 덴마크 제 스캔 스피크 드라이버를 특수 버전으로 제작한 18W 미드 우퍼를 채용하였고, 고역에는 역시 스캔 스피크의 링 라디에이터 트위터가 사용되었다. 장인들의 수작업으로만 완성된 캐비닛은 견고하면서도 이탈리아 특유의 모던한 디자인 때문에 소유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는데, 후면의 알루미늄 포트라든가 고급스러운 바인딩 포스트까지, 외관에서는 흠잡을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귀로 확인하는 절차. 시청실에는 오디오플레이어의 하이엔드 CD 플레이어라든가 그 외 고급 앰프 등이 있었지만, 피콜라와의 가격 형평성과 부지불식간의 과대평가를 억제하고자 덴센의 CDP-B440/ B-250 프리 앰프/ B-330 파워 앰프를 매칭 하였고, 청취 음원으로는 D4A Sound(www.d4aso

und.com)의 고음질 리마스터링 음원을 수록한 마스티 CD에 담긴 여러 장르의 곡들을 준비하였다.

가장 먼저 머라이어 케리의 데뷔곡으로서 특유의 소위 돌핀 고역이 돋보였던 〈Vision Of Love〉부터 시작하자. 중저음부터 시작하여 소프라노의 하이 키까지 소화하는 메인 보컬 라인을 배경으로 곡 후반부에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 안갈 만큼 치솟아 오르는 머라이어 본인의 돌고래 코러스가 든실한 연주음들 사이로 하모니를 이루어낸다. 한마디로 발라드 팝에서는 굳이 더 다른 곡을 들어 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였다.

다음으로는 가요 댄스곡을 실험하여 보았다. 올 상반기에 국내 가요 차트를 올릴까였던 티아라의 클럽 서클 댄스곡인 〈Lovey Dovey〉. 대부분의 오디오 파일들이 가요 CD를 사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오디오용으로서는 너무나도 허술한 레코딩 퀄리티인데, 이를 리마스터링한 D4A sound 버전은 강렬한 일렉트로 사운드와 박진감 넘치는 저음층을 청취한 결과, 댄스곡의 생명인 나도 모르게 춤추고 싶다는 흥의 맛을 충분히 돌구어주고 있었다. 보이스코터를 타고 흐르는 티아라 멤버들의 보컬라인도 명료하였고, 전자 드럼의 터치도 투웨이 임에도 불구하고 사뭇하면서도 견고하게 곡 전체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클래식적 현과 오케스트라를 구현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뿐. 율리아 피셔가 바이올린 독주를 맡은 바하 콘체르토 A' 단조를 오리지널 CD로 재생하여 보았다. 그리고는 곧바로 나만의 시간 속으로 슬며시 빠져들어 앨범 전체의 플레이 백이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본연의 업무인 스피커 테스트가 아닌 음악 감상의 세계 속 여행을 하고 있으려니, '로베르토 바틀레타의 모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현대 스피커들이 대부분 으스대는 집요하리만큼의 선명도라든가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 혹은 관능적인 사운드가 아니라, 음악과 테크놀로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그 전체

를 이탈리아 특유의 달콤하고도 세련된 멋으로 감싸주는 절제와 시원함의 양면적 조화! 100와트 정도의 앰프로 손쉽게 구동할 수 있는 모던하면서 컴팩트한 스피커 속에서, 장인의 손길과 풍요로운 음악의 하모니가 소비자의 귀를 당길 수밖에 없다는 자비안의 광고 문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귀와 가슴으로 체험하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음악성을 갖춘 올라운드 스피커이다 보니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자택용으로 출시되어있는 5.1 구성의 XN 250 에볼루지오네 리어 스피커와 뉴바쏘 서브 우퍼를 연결하여 영화 감상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발동하였으나, 아쉽게도 A/V 시청실이 아니어서 그 기회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였는데, 발매 전용 스탠드인 뉴 메탈리코까지, 도대체 무엇 하나 허술함이 없는 이탈리아 디자인에 모양새 만으로도 지름신이 발동할 만큼 완성도가 매력적이었다.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엑세서리로 소개되는 자비안의 LP 수납용 박스조차도 땀이 날만큼 디자인이 우수한 회사가 누리는 매력은 팔색조의 다양함에 비견 될 것이다. 더 들다가는 하루해가 떨어질 것 같아 시청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귓가에 계속하여 뱅도는 피콜라의 켈라토 향 소리가 마치 고급 이탈리아 와인인 부케처럼 좀처럼 나의 감각 기관에서 떠나려 하지 않을 것 같았다.

- DETAILS**
MID-BASS FREQUENCY: unit 180 mm custom Scan-Speak, made to Xavian specifications, paper membrane with carbon fibers, 42 mm voice coil, SD1 "motor"
HIGH FREQUENCY: unit selected Scan-Speak Ring Radiator - 26 mm voice coil, copper shortcircuiting ring
SYSTEM TYPE: 2 ways damped bass-reflex, massive rear aluminium port
CABINET: 22 mm MDF hand-crafted, bituminous damping
FREQUENCY RESPONSE (-3 DB ON REFERENCE AXIS): 44 - 30000 Hz
CONNECTION: 1 pair of singly mounted XAVIAN binding posts
NOMINAL IMPEDANCE: 8 ohms
CROSSOVER FREQUENCY: 2600 Hz
SENSITIVITY: (2,83 V / 1 m) 85 dB
RECOMMENDED POWER AMPLIFICATION: 30 - 120 W
DIMENSIONS: (HxWxD) 900 x 196 x 320 mm
NET WEIGHT: (1 unit) 22 kg
수입원:(주)다비앙
TELEPHONE: 02-703-1591
WEBSITE: www.avprime.co.kr

